

보호자 없는 병동 확대

군산시보건소, 동군산병원 50병상·차병원 25병상 추가 확보

군산시보건소는 환자에게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보호자 없는 병동이 동군산병원 50병상, 차병원 25병상이 추가로 확보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자 없는 병동이 기존 145병상(군산의료원 100병상, 동군산병원 45병상)에서 220병상으로 확대됐다.

보호자없는 병동(간호·간병통합서비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 입원병상 환자를 24시간 전담하는 전문 간호서비스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아도 입원생활이 가능하

다. 특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고, 환자에게 필요한 입원서비스를 의료와 간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직접 제공함에 따라 입원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스스로가 일상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원이 이뤄져 빠르게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수반되는 장점 중의 하나다.

시는 기존 보호자 없는 병동 중 군산의료원(100병상)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며 서비스 운영이 잠정 중단돼 시민불편이 우려됐지만, 신규 추가 병동이 확보되며 필수 수요에 대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보호자 없는 병동의 확대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부담을 줄이고,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를 비롯한 병원내 감염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지역의료기관과 협력·소통하여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의회 서동수·조경수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역사회 발전 공로 '인정'

서동수·조경수 군산시의원, 지방의정봉사상

군산시의회 서동수·조경수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북시군의정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서동수 의원은 재선 시의원으로 7기째 경제건설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대 하반기 경제건설위원회로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약자 권익 향상을 물론 군산 지역의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끌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경수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7기째 행정복지부위원장, 제8대 전반기 행정

복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군산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복지증진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5분 발언을 통해 건전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인정받았다.

서동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남은 임기 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수 의원은 “부족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큰 상을 수상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군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군산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다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고, 이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기자

군산시 안심식당 지정 칸막이 설치 지원

군산시는 안심식당 지정과 비탈차단 테일블 칸막이 설치 지원으로 음식점 내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방역마스크 및 이용자 명부, 비탈차단 칸막이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럼에도 코로나19 감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지난 3월에 이어 8월에도 추경예산을 확보해 60개 업소에 비탈차단 테일블 칸막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심식당 모집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주로 식사류를 취급하는 음식점 중 선착순 모집한다.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참여하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으려면 주로 식사류를 취급하는 업소이면서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일지 작성, 손소독제 비치 및 환기실시, 남은 음식은 식탁에서 쫓아서 폐기 등을 실천하면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숨겨왔던 너의 기록을 보여줘'

익산시, 10월15일까지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익산시가 지역의 변화와 발전, 생활상이 담긴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

'숨겨왔던 너의 기록을 보여줘'를 슬로건으로 10월15일까지 '제1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한다.

지역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대상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 중인 익산의 역사, 문화, 마을 풍속 등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이다.

오래된 앨범, 먼지 쌓인 서재 거미줄이 처진 창고 속에 남아 있는 지금이 아니면 사라질 기록을 찾는다. ▲농업일기·공립학교 졸업생명부·서당교재·고서적·일기·편지·수첩 등 문서류 ▲사진·앨범·테이프 등 시청각류 ▲각종 신분증·월급봉투·배지·상장 등 박물관 등이다.

익산시 홈페이지(www.ksan.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e-메일(mssa83@korea.kr)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익산시 행정지원과로 기록물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중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수상작에는 1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한다. 수상작은 11월 중 전시할 예정이며, 문서고에 보존하고 추후 익산시 홍보·연구 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김재훈기자

군산시, 민원담당 우수공무원들과 소통 간담회 개최

군산시는 일선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추천 친절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민원담당 우수공무원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시 홈페이지 내 '칭찬합니다' 게시판과 칭찬엽서, 편지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받은 공무원 및 법정민원처리 기간 내에 빠른 민원처리로 시민이미 향상에 기여한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



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민원행정 현안 사항 및 시정 업무, 개인 고충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사 무실 및 민원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해 주민과 직원 모두의 건강을 챙길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민원인과 직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민원업무 처리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친절하게 업무처리를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민원인의 말 한마디에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공지가 생긴다”면서 “반면 자신의 뜻대로 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민원인을 상대하고 나면 다음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무렵고 부담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민원담당 직원의 정신적 고충에 충분히 공감하며 각종 고질민원에 대한 대처방안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민원담당 직원들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약사회 업무협약

군산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군산대학교 링크플러스 사회혁신사회협력센터가 군산시 약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생명사랑약국'을 5곳 지정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약봉투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군산시 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과 다각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 이번 생명사랑 약국, 생명사랑 약봉투 사업은 군산대학교에서 실시한 인문·사회 하계 창의융합종합캠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사랑 대학생 서포터즈2명 2팀이 참여해 만들어진 자살예방 프로젝트 결과다. 지정된 5개 '생명사랑약국'은 생명



사랑 약봉투를 적극 활용해 노인 및 시민들에게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지역사회 생명 지킴이로서 자살예방을 위해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

김효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밀착도가 높은 약국을 생명사랑약국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자살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남병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